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4월 12일 (둘째 주일/부활주일)

성경본문 : 마가복음 16장 1-8절

설교제목 : “그가 살아나셨고”

기독교는 “그가 살아나셨고”의 부활종교입니다.(6절) ‘그가 살아나셨다’는 선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기록은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씩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마태는 당시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세 명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부활이 실재성, 역사성을 확보하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마가 본문은 ‘안식일이 지나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합니다.(1절) 그런데 **눅23:56**의 기록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보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이후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 향품을 준비했지만, 부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다시 상거래가 시작되는 시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더 충분히 구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안식후 첫 날’이란 시간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2절) 마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다시 일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구속의 완성이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은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확대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결국 구속의 역사가 언제 완성되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이 날이 안식일 지난, 안식 후 첫날 인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은 창조와 구속이 완성된 날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 후 첫날 이라는 이중적 반복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부활의 날은 창조와 구속이 완성된 날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게 됩니다. 주일은 부활의 역사를 담은 특별한 카이로스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은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있어 특별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다시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에서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부활의 날을 ‘해 돋을 때’라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 중에 마태는 이 부분을 **미명(마28:1)**으로, 누가는 **새벽에(눅24:1)**란 표현으로,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요20:1)**라고 각각 표현합니다. 다 같은 시간적 표현 같지만 2절에서 ‘해’로 번역된 ‘**헬리오스**’는 일차적으로 ‘태양’을 가리키지만, ‘우월성’, ‘영원성’을 상징하거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예 말4:2) 따라서 막16:2에서 **해**란 태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돋을 때**’로 번역된 ‘**아나텔로**’는 해와 별이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돋을 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가가 ‘**해돋을 때에**’란 표현으로 보여주는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란 사탄 마귀가 다스

리는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밝아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참고 찬송 550장의 가사를 묵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7절을 주목해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후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갈릴리**란 이스라엘 북쪽은 변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습니다.(사9:1) 한마디로 갈릴리란 유대인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고 이방화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잊혀지고 버림받고 이방화된 땅인 갈릴리를 메시아가 회복시킨다고 합니다.(사9:1-2)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이 영화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갈릴리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갈릴리와 같은 삶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변방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아픈 삶의 현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채,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사는 삶의 현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삶의 현실. 좌절과 실패한 삶의 현실. 이러한 삶들이 갈릴리가 상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가신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버려진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잔혹한 실패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찾아가셨듯이 가장 잔혹한 실패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무대로 다시 이끌어 올리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갈릴리와 같은 삶의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칠홍같은 어둠에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갇혀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구약의 안식일이 왜 주일로 대체되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마가가 안식 후 첫날을 ‘해 돋을 때에’라는 모습으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마가가 전한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오늘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전하는지 묵상해 보고, 서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